

Section II

---

정책논단



## 비싼 임금이 주도한 동반성장: 이론과 사례

### 임종철

“나는 방학 때면 늘 몇 개 도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갔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뒷골목길을 하나하나 걸어다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내 힘이 닿는대로 철저하게 경제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 알프레드 마샬

### 1. 이론: 마 샬

브라이트(J.Bright) 등 맨체스터학파 추종자들은 고임금에 부정적이었다. 비싼 임금은 노동자를 3S의 악덕에 빠뜨릴 뿐 생활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들이 말한 3S 악덕이란 그늘에 들어가서(Shade) 담배나 피우다가(Smoking) 잠이나 잔다(Sleeping)는 것이다. 당시의 영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공업화 초기 단계 노동자 생활은 실상이 그랬다. 후발 공업국이던 러시아에서는 지친 노동자들을 계속 기계 앞에 세우기 위해 사용자들은 작업시간 짬짬이 보드카를 먹이기도 했다.

맨체스터학파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 캠브리지학파 시조인 마샬(A.Marshall)이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 영국 경제를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분석한 끝에 평화와 번영의 60년대(peace and prosperity of 1860's) 이후 영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노동조합 지도하에(led by the trade union) 영국 노동자들이 실현시킨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마샬은 쾌락 수준(standard of comfort)과 생활 수준(standard of life)을 구별하였다. 쾌락이란 술, 담배, (실용성 없는) 사치품 등 인공적 욕망 충족을 통해 얻어진다. 반면 생활 수준 개선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인간을 개선·발전시키는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 임금상승분이 3S 등 인공적 욕망 충족에 지출되면 노동자들은 그전보다 더 비참해진다. 반대로 자연적 욕망 충족, 특히 교육에 투자되면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서 노동자의 인간성 고양과 동시에 노동생산성도 향상시킨다. 마샬은 영국노동조합이 본래 품고 있던 목적은 임금인상을 생활 수준 향상에 직결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고임금과 동시에 노동조합이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도 해당 기업, 해당 산업뿐 아니라 국가변영까지도 가져왔다고 단언했다. ‘어떤 직업,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생활 수준 향상은 그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킨다. 국민분배분도 어느 정도 증대시킨다’는 것이 마샬의 주장이었다. 통계를 보더라도 영국 경제의 10년 평균 성장률은 1841년~1871년간의 23.8%에서 1871~1901년간의 38.6%로 커졌고 1인당 생산량도 10.3%에서 23.3%로 커졌다(근대국제경제요람, 1981, 동경대학출판부). 반대로 1847년에 10시간 법(Ten Hours Bill)이 통과되었을 때 그 자신 사업가였던 브라이트는 ‘법을 형태로 지금까지 통과된 것 가운데 가장 나쁜 수단 중 하나’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론은 간단하다. 마샬이 말한 효율성은 바로 노동생산성이고 국민분배분은 GNP다. 임금인상이 노동자 생활 수준을 상승시킨 결과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보다 크게 상승하면 생산량(=GNP)는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기업이윤도 증가한다. 그 결과 기업은 채산성을 개선시켜가면서 또 다른 임금인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임금 → 고노동생산성 → 생산증대·실질임금 하락·이윤증대 → 고임금이라는 선순환이 시작되어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임금인상률보다 크냐 같냐 작냐 하는 탄력성에 있다. 크면 지속적 고도성장, 같으면 현상 유지, 작으면 임금추상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가 결과된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노동조합이 쟁취한 고임금, 그리고 노동자소득증대를 쾌락 수준이 아닌 생활 수준 향상에 이용케 한 노동조합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칭찬한 마샬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기업가의 경제적 기사도를 통한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학도가 아니라도 지식층은 모두 알고 있는 마샬의 이 주장은 1898년에 발표한 ‘경제학에서의 기계적 유추와 생물학적 유추(Mechanical and Biological Analogies in Economics, 1898)’ 및 ‘경제적 기사도의 사회적 가능성(Social Possibility of Economic Chivalry, 1907)’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마르크스의 기계론적 방법론이나 스미스의 천체물리학적 방법론 대신 생물학적 방법론을 전개했다. 경제도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하여 양대구성요소인 자본가

와 노동자 사이에도 생물학적인 균형 발전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그는 1919년에 저술한 ‘산업과 교역(Industry and Trade)’ 안 표지에 ‘하나는 다수 안에, 다수는 하나 안에(The One in the many, the many in the one)’라는 말로 노사화합을 강조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요한복음 14:20)’의 in은 마샬의 in과 정확히 같으며 노사합일(合一)을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요한복음 15:7)’라는 성경 구절대로 노사가 공동번영할 것을 마샬은 확신하고 있었다.

평생을 자본주의 연구에 바친 독일경제학자 쾰바르트(W.Sombart)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 소유자이며 동시에 지휘권을 가진 경제주체인 자본가와 무소유의 경제객체일 뿐인 노동자라는 두 개의 집단이 …시장을 통하여 결합된 유통경제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하나는 자본가이고 다수는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이윤획득과 경제적 합리주의’를 기본전제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가 주장한대로 기계론적으로는 노사 상생보다는 노사 상극(相克) 확률이 더 클 수 있다. ‘공산당선언’이 발표된 1840년대 독일의 현실이 그랬다. 그러나 마샬은 유기체 성장을 토대로 생물학적·유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단, 마샬은 국민경제라는 유기체가 주체적 노력 없이도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 ‘경제적 기사도’론이다. 해당 논문에서 마샬은 ‘부유층이 쾌락 수준을 만족시키려고 지출하는 돈이 17억 파운드 규모인 국민소득 중 4~5억 파운드가 되는데 그중 1~2억 파운드만 중세 기사도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사용되어도 영국 사회는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부자의 의무(Richesse Obligé)’를 요구하였다. 노사합일과 이에 기초한 노사상생적, 생물학적 균형 발전은 부자의 쾌락 수준 인하, 달리 표현하면 베블렌(T.Veblen)이 말한 과시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축소라는 ‘자본가(하나)’에도 아무런 실질적 고통이 없는 행위로 ‘노동자(다수)’의 협조와 이를 통한 지속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마샬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케인즈 이론(특히 순수이론)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스웨덴학파에서는 어떤 충격이든 선순환 또는 악순환 쪽으로 누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빅셀(Wicksell)적 누적과정론이 그것이다. 미르달(G.Myrdal)은 어떤 충격이든 경제에 파

급효과(spread effect) 또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파급효과가 역류효과를 압도하면 순환적 누적적 인과관계 원리에 따라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는 발전한다. 반대로 역류효과가 파급효과를 압도하면 그 경제 사회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 예로 그는 이민 또는 농촌에 둘러쌓인 도시의 공업건설을 들고 있다. 이민을 가거나 도시에 새로 생긴 공장으로 옮겨가는 인력은 모험심·기업 마인드가 있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우수한 인력 상실로 마을에는 역류효과가 발생하며 농촌(또는 이민 본국)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또 다른 유능한 인력 유출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누적된다.

그러나 선순환도 가능하다. 이민 간 또는 도시공장으로 옮긴 사람들이 소득 중 의미있을 정도의 일부를 출신 농촌으로 송금한다면 자본·노동 비율(이민이 남기고 간 농지 및 송금한 돈과 남은 인력 비율)이 커져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에도 이민·이주자의 경제적 기사도가 선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 2. 사례(史例)

### 2.1. 거시적 사례: 스웨덴

1의 이론에서 든 빅토리아 시대 및 그 후의 영국경제발전도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뒤늦게 공업혁명을 시작하여 영국보다도 먼저 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을 또 하나의 거시적 사례로 들고자 한다.

노사협조라고 하면 ‘살트세바덴 협약’을 떠올릴 만큼 스웨덴 노사관계는 세계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후발 공업 국가 스웨덴이 여러 선진 공업 국가를 추월할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주요인 중 하나로 ‘평온한 노동시장(calm labor market)’을 꼽고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 공업화 대열에 참가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극렬한 대립과 처절한 투쟁으로 얼룩져 있었다. 국민경제도 인구가 350~500만명 정도였던 1860~1930년 사이에 총 100만명 정도가 이민을 가야 할 만큼 가난했었다.

최초의 파업은 1869년 수도 스톡홀름에서 벽돌 쌓는 건설노동자가 일으켰고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쟁취하는 등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승리는 거기서 끝나고

그 후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1875년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1879년 순트발(Sundevall)에서 극에 달한 목재공업파업은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10% 임금 삭감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되어 그 자리는 타지방에서 온 노동자 몫이 되었고 그때 까지 평온히 살고 있던 사용자 소유인 주택에서도 쫓겨났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은 조직이 필요하고 파업은 매우 긴박할 경우에만 써야 할(날이 두 개인) 검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였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1898년에 노동조합전국조직(Landsorganisationen, LO)이 출범하게 된다. 그 후 크고 작은 노사분규를 통하여 성장한 LO는 1905년 노르웨이가 분리·독립을 선언하였을 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할 만큼 강력해졌다. 한편 사용자 측도 1902년 LO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노동환경개선,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스웨덴경영자연맹(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을 결성했다.

1907년에 세계금융 공황 여파가 스웨덴에도 파급되자 사용자는 임금삭감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서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이 오래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퍼지자 1909년 7월 14일 SAF는 임금삭감안을 수락하고 7월 26일까지 무조건 직장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LO는 이를 거부하고 산하조직에 대하여 총파업 지령을 내렸다. 7월 26일이 되자 SAF는 공장폐쇄를 단행하여 당일에만 5만 명이 공장에서 쫓겨났고 8월 2일에는 다시 2만 명이 쫓겨났다.

LO 산하 노동자 중 15만명이 총파업에 들어갔고 LO 조직 아래 있지 않은 또 다른 15만 명의 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2만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철도노조는 공익성을 생각하여 1만 5천명: 7천명의 표차로 총파업에 불참했다. 철도·상하수도·병원 등 공익시설 노동자가 불참한 이유는 LO의 유력한 지도자 중 한명인 브란팅(H. Branting, 1932년 사민당 정부 초대 수상)이 불참을 간곡히 설득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유효한 경제정책 수단인 하나로 정부가 자주 활용하던 비중을 감안할 때 철도노조의 파업 불참은 치명적인 양보였다.

여름에 시작한 총파업은 가을이 가고 북유럽의 유명한 추위가 다가올 무렵 말피, 예테보리 등 주요 공업도시뿐 아니라 수도 스톡홀름 노동자들까지도 심각한 식량·의복·연료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총파업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승리는 이제는 멀어져갔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여전히 경탄할만한 결집력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차일즈(M.Childs)는 말하고 있다. 임동이 닥치자 LO 기금은 바닥나고 노동자는 더 이상 팔아먹을 가재도구조차 없어졌다. 노동조

합 중 몇이 SAF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게 되면서 노동전선에 균열이 생겼다. 결국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닥친 12월 15일 LO는 조건 없는 직장 복귀를 SAF에 통보했다.

LO와 이를 지원했던 사회민주당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파업 전 LO는 162,391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합비납입액은 4,703,199크로네에 달했었다. 그런데 1909~1911년간에 LO를 탈퇴한 노동자는 95,635명에 달했다. 사민당도 14만 당원 중 6.2만 명이당을 떠났다. 당원이 다시 10만 명 선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에도 1889년 4월에 창당했을 때 극좌·중도·온건 보수 등 3파가 있었으나 몇 차례의 숙당으로 좌파 과격분자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1909년 총파업 당시 당과 LO 지도층 중 소렐(G.E.Sorel)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O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그 이전 파업에서뿐 아니라 최악의 곤경에 처했던 1909년 총파업 기간에도 ‘법과 질서’를 엄수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일이 없었다고 차일즈는 칭찬하고 있다.

LO 결성 이후 여러 차례 총파업에서 승리했던 노동조합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 깨달았다.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 대의명분론은 사용자 측의 정연한 논리와 경제이론에 번번이 밀렸다. 또, 사민당 이외에는 어떤 정치·사회·종교집단의 지지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LO는 파업에 끝나자 바로 전국의 노조 지부를 교실로 바꾸어 경제학·사회학·역사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노동조합 본부는 학교가 되었다(Union headquarters became schools)’, ‘노동자교육협회는 일종의 노동고등학교가 되었다(Workmens Educational Society became a kind of labor high school)’고 차일즈는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LO는 정치에 눈을 돌렸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모든 차원의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는 등 선거에 열심히 참가했다. 빠짐없이 후보자를 내세웠고 적임자가 없을 때는 자신들 주장에 가장 가까운 생각을 가진 중도·보수계 후보까지도 표를 주었다. 대부분의 경우 표는 사민당에 주었고 그때까지도 상당히 공고하게 유지되어왔던 사민당과의 유대는 이때부터 더욱 굳건해졌다. 그 유대는 결국 1932년 사민당 단독정권을 탄생시키고 1982년까지 계속된 사민당 단독정부 시대를 탄생시켰다. 1932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90년 중 사민당은 70년을 집권하고 있다.

총파업을 겪은 후 대오각성한 것은 LO뿐만이 아니었다. 사용자와 왕실 또한 그



했다. SAF도 우리는 정당하게 법과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당연한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노동자 가정의 참혹한 상황을 법과 질서, 경제 논리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가진 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그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반성 위에서 SAF는 LO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좀 더 관대한 자세를 갖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도 크고 작은 노동쟁의가 있었지만 ‘살트세바텐 협약’을 맺게 된 데에는 SAF의 태도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노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노조의 관심사는 모두 단체교섭 아젠다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데 이같이 엄청난 인식변화의 출발점은 실패로 끝난 1907년의 총파업이라고 생각한다.

왕실을 비롯한 상류사회 분위기도 바뀌었다. 스웨덴 사회가 분열되고 노동자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가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은 ‘왕은 군림하지,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대원칙만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왕실은 반성하였다. 차일즈는 국왕 구스타프 5세만 제외한 왕족 모두가 노동자와 노조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웨덴 공주도 그런 사회단체의 장을 맡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에는 동질화·통합 무드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LO는 다시 힘을 얻고 임금인상·격차 해소에 적극 나섰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더 이상의 임금 격차해소 노력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공언할 만큼 임금 수준도 높아졌고, 또 평준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민당 정권의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이 큰 공헌을 했다. LO의 노력도 각별한 것이었다. LO 산하 조직인 철강노조는 스웨덴 최강의 노조이다. 그러나 SAF·LO 단체협약에서 LO는 철강공업 임금인상률을 양보하고 그 대신 섬유공업 임금인상률을 그 차액만큼 올려달라고 교섭할 만큼 산별노조 간 유대도 공고했던 것이다.

LO는 또 다른 면에서도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2차대전 후 전후 인플레이션이 스웨덴에도 파급되었을 때 타계 엘란데르(Tage Fritjof Erlander) 수상은 사민당 단독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때 LO의 쟁쟁한 이론가였던 렌(G. Rehn)과 메이드너(R. Meidner)는 법인세 인상이 생산 왜곡을 가져오므로 간접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LO도 이를 수용하고 국민은 렌·메이드너를 비난하지 않았다(메이드너는 1983년에 제정된, 자본가에게는 악명 높은 임금소득자기본법의 토대인 소위 메이드너 보고를 LO에 제출한 이론가였다).

‘어느 때부터 잘 살게 되었느냐’는 외국 기자 질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하나같이 ‘엘란데르 수상(1946~1969년간 재임) 때부터’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사민당 정부와 LO가 일심동체가 되어 임금인상·격차 해소에 노력하였고, 사용자들은 너그럽게 이를 수용하면서 임금인상 → 노동생산성 상승 → 생산·이윤 증대 → 또 다른 임금인상이라는 선순환을 촉발시켜 가장 늦게 공업화를 시작하여 1910년까지도 이민 송출에 살 길을 찾던 스웨덴을 불과 40년 만에 부유한 복지국가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2.2 미시적 사례: 포드 회사와 SBC

### 1. 포드 자동차회사

1914년 3월 포드 자동차회사 사장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임금을 하루 5달러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계 평균임금은 2.5~3달러였고 노동시간은 평균 12시간이었다. 이날부터 포드 회사 공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각, 조퇴, 병을 칭탁한 결근과 태업은 그날로 자취를 감추었다. 포드 회사 노동자들은 황금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였고 컨베이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도 크게 늘어났고 생산 원가는 현저히 하락했다. S형 모델 후속 차종으로 1908년에 개발된 T형 모델 가격은 1909년에는 950달러였는데 1916년에는 360달러로, 1926년에는 다시 290달러로 하락하였다. 생산량은 1914년 30만 대였던 것이 1921년에는 100만 대로 증가하였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일당 5달러(five dollars a day)’ 신화다. 포드는 ‘머지않은 장래에 임금을 7달러로 인상하겠으며 나중에는 10달러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1929년에 정말 7달러로 인상했다. T형 모델 생산량도 150만 대로 늘어 포드 자동차 회사는 선발기업인 GM을 제치고 자동차 공업 1위 회사로 오르고 포드 자신도 1920년대를 통하여 미국 제1의 부자가 되었다. 일당 5달러이면 58일간 임금, 7달러이면 41일 노동이면 T형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은 오래지 않아 모두 T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중류 생활을 즐겼고 디트로이트시는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값싸고 대량 공급되는 T형 모델 차로 인하여 자동차는 부유층 사치품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하였다. 늘어난 자동차 왕래를 위하여 도로 폭은 넓어지고 포장되었으며 시민들은 도시의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버리고 한적한 교외의 넓

은 정원이 달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30년이 못 되어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미국의 생활양식은 일변하였다. 이 모두가 헨리 포드의 자동차 혁신이 촉발한 것이었다.

헨리 포드는 경제학사적으로 보면 경제학의 시조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였던 분업사회적 유토피아를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었다.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성을 상승시켜 ‘수십만 인민에 대한 생산여탈권을 가진 야만인의 주장보다 더 많은 부를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업이 주는 편향성 때문에 노동이라는 인간 활동을 통한 인격 향상을 저해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유명한 핀 제조 사례에서 철사를 잡아늘이고 곧게 하며 끊는 등 제조과정을 18개로 분업하면 하루 20개도 못 만들던 노동자가 4,8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업에 가담한 노동자는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몇십분의 1인 1공정만 만듦으로써 인격적 완성을 실현할 수 없다고 걱정하였다. 정상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인격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미스는 생산량 증대 못지않게 노동시간 단축을 생각했다. 노동생산성 상승 이익을 생산량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분하여 노동자가 단축된 시간을 인격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 2. Scott Bader Commonwealth

다른 하나의 미시적 사례는 슈마허(E.F.Schumacher)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에서 든 스콧 베이더 공영회사다. 베이더(Ernest Bader)가 스콧 베이더 회사를 창립한 것은 그가 30세 때인 1920년이였다. 그는 제2차대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창립 31년 후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한 회사를 종업원 161명, 매출고 62.5만 파운드, 순이익 7.2만 파운드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다. 주 생산품은 폴리에스터 수지였다.

그는 평소 ‘인간을 공업 생산활동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업 생산활동을 인간 본성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창업 31주년인 1951년에 그는 이 신념을 실천했다. 그해에 그는 회사 자산의 90%를, 그리고 나머지 10%를 1963년에 스콧 베이더 공영회사(SBC)에 투자했다.

### SBC 운영을 위한 기본원리는

1.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 350명 내외로 제한한다.
2. 연령·성별·기능·경험과 상관없이 최고/최저 봉급 간 임금 격차는 7:1로 한다.
3. 직원은 피고용인이 아닌 동업자이고 중대한 개인적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다.
4. SBC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SBC 이사회가 갖는다.
5. 순이익은 그 40%만 SBC가 처분한다. 나머지 60%는 조세충당금으로 유보한다. 40%의 가처분 순이익 중 절반인 20%는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인 20%는 외부자선단체에 기부한다.
6. 전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분명한 구매자에게는 SBC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하에 운영된 SBC는 1951~1971년간에 제품판매액을 62.5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로 8배, 순이익은 7.2만 파운드에서 40만 파운드로 4.2배, 동업자(=종업원) 수는 161명에서 379명으로 2.4배 증가시켰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15만 파운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15만 파운드였다. 이 밖에도 몇 개의 자회사를 신설했다고 슈마허는 말하고 있다.

1951~1971년간에 위에 말한 바와 같은 SBC의 실적 상승이 자본가가 지휘권을 독점하고 있는 다른 기업 또는 영국 전체의 경제발전보다 크지, 얼마나 크지는 슈마허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도 슈마허가 배타적 소유보다는 공동자본·공동경영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기업발전은 소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는 증명되고 있지 않다(이는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슈마허 주장이 그르다는 뜻은 전혀 아님을 밝힌다).

SBC를 예로 든 슈마허의 책 제4편 제11장의 논의는 소유 형태와 경영효율 관계를 논한 것으로 SBC는 단지 그 한 가지 예 중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SBC 사례도 포드 회사 사례처럼 기업가가 선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일을 계기로 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것이 노사 및 국민경제의 동반성장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한 것이다.

### 3. 맺는 말

시장경제이론은 자유 경쟁이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조화로운 성장·발전을 실현시킨다는 경제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스미스는 ‘제약을 가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하는 일체의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자연적 자유 체계가 저절로 성립’되고 이 체계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자본 또는 노동을 같은 계층 또는 다른 계층 사람들의 자본·노동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예정된 조화’ 상태로 정착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경쟁시장이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였다.

- 첫째,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단결되지 않은 분산된 존재이다. 스미스는 노동자 단결뿐 아니라 자본가의 단결도 부정했다. 또한 노동자 단결을 탄압하면서도 자신들은 은밀히 또는 공공연히 단결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 둘째,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들은 이익의 질을 같이한다.
- 셋째, 시장에서 서로 흥정한 끝에 체결되는 계약은 재산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 넷째, 모든 경제주체는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다섯째, 각 경제주체는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여섯째, 각 경제주체는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끝으로 각 경제주체는 계약 내용을 흥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흥정의 결과로 성립된 흥정가격(bargained price)이 곧 시장가격(market price)이다. 스미스는 흥정은 필연적으로 호양(互讓, give and take)을 보장하는 (자유)계약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교환이익은 균질적인 모든 경제주체에게 균질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업이 주는 엄청난 생산성 상승 혜택은 모든 시장 참가자에 균점되어 ‘하찮은 노동자라도 수많은 부족민에 대한 생산여탈권을 가진 야만인 추장보다도 훨씬 많은 부를 가질 것이다’라고 스미스는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확립 초기인 경쟁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스미스의 이런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경쟁시장 참가자들은 스미스 생각과는 달리 결코 균질적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콜(G.D.H.Cole)이 지적했듯 출발점부터 불평등했던 재산 소유, 생산자 또는 중간 수탈자로서의 능력, 부도덕성 내지는 냉혹성, 종사하는 사업 종류(산업)의 차이 그리고 순전한 요행까지도 스미스적 자유 경쟁 기제의 기능을 왜곡시켰다.

모든 경쟁은 균질적 참가자 간에서조차 반드시 우승열패를 결과한다. 하물며 균질적이 아닌 참가자 간에 작용한 시장경쟁은 철강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제2차 공업혁명을 계기로 균질적 동반성장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낳는 기제로 변질하였다. 시장 참가자는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을 골라가며 흥정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동시에 계약 내용을 흥정할 수 있는 자유도 상실하여 ‘이 값으로 사고, 싫으면 말아라(take it or leave it)’는 지정가격(fixed price)이 흥정가격을 대신했다. (자유) 계약은 부합 계약(adhesive contract)으로 변질되었다. 이익의 질을 같이했(다고 상정되)던 경제주체는 이질적, 상극적인 이익집단으로 분열되고 경쟁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변했다.

뉴턴의 천체물리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스미스의 원자적 사회상(atomistic view of society)으로는 더이상 시장경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면서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의 상극적인 계급투쟁설이고 뒤이어 등장한 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마샬의 상생적인 유기적 성장론이었다. 마르크스 이론은 1840년대의 빈곤한 유럽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마샬 이론은 빅토리아 후기의 풍요한 영국 경제 실상을 분석 대상으로 한 일반화였다. 1930년대 대공황에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해도 다수가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이 붕괴하여 공산주의 명령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은 마샬의 유기적 성장론에서 자본주의가 살길을 찾는 것 같다. 유럽 사회주의, 특히 북유럽 동맹국들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마샬적 유기적 성장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 동반 성장이론도 마샬 철학이 그 이론적 근거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마샬은 ‘경제적 기사도의 사회적 가능성’에서 자본가들이 과소비에 지출하는 돈을 노동 분배 분으로 돌려 상생적 경제성장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저인 ‘경제학 원리’에서는 제3편 전체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지도된 노동자 노력이 19세기 후반 영국의 평화로운 사회와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의 기본대상은 온갖 종류의 (시장) 교환이다. 시장교환은 등가교환

(equal exchange)이다. 또 등가교환이어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 이후 모든 시장경제이론의 대전제였고 철칙이었다. 등가교환만이 조화, 즉 경제정의(justitia commutativa)를 실현시킨다는 것이 도덕철학자 스미스의 기본 이념이었다. 등가교환이란 교환이익이 50:50으로 분배되는 호양 교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사동반성장·빈부동반성장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배분 정의(justitia distributiva) 그리고 일반 정의(justitia generali)의 기초인 것이다.

임종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메일: kej@snu.ac.kr



## 참고문헌

- Adam Smith (1776): *An Inquiry in 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Alfred Marshall (1961): *Principles o Economics*, 8<sup>th</sup> Ed., Macmillan & Co..
- E. F. Schumacher (1973): *Small is Beautiful*, Blond & Briggs Ltd..
- G. D. H. Cole (1950): *Socialist Economics*, Gollancz.
- Gunnar Myrdal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Duckworth, London.
- Marquis William Childs (1936): *Sweden: the Middle Way*, Yale University Press.
- Thorstein Veblen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lan & Co..
- Timothy Alan Tilton (1991): *The Political Theory of Swedish Social Democracy*, Clarendon Press.
- W. Sombart (1919): *Der Moderne Kapitalismus*, Leipzig, München, Duncker and Humblot.
- 岡沢 憲芙 (著) (1991): *スウェーデンの 挑戦*, 岩波新書.